



현재 일본은.....

1. 일본의 전후보상 재판 현황

제2차 세계대전시 일본에 의한 전쟁피해에 관한 전후보상재판은 현재 일본 사법부에 약 50여건이 계류 중에 있다. 재일 한국인 문제 5건, 일본군 '위안부' 문제 8건, 일본기업 문제 10건, 대만관계 5건 등이다. 일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재판은 현재 1998년 4월 일본군 '위안부' 3명에 대해 손해배상금 30만엔을 지급할 것을 명령한 시모노세키 판결(1심)을 제외하고는 한 건도 없다. 그것도 일본정부의 항소로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재일 한국인 '위안부' 송신도 할머니의 재판의 경우, 1993년 4월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24회에 걸친 변론이 있었으나 1999년 10월 단 30초만에 기각 처리되어 이 재판을 지원한 많은 사람들의 울분을 샀다. 송신도 할머니 재판은 2심을 준비중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사법부는 '피해사실은 인정하나 일본정부의 사법적 의무는 없다'는 논리로 거의 대부분의 재판들을 기각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위안부' 보상법안 마련 중

일본의 시민단체들과 입법운동 단체들은 입법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일본군 '위안부' 보상법안이다. 이 법안은 일본의 전쟁피해자 중 일본군 '위안부'를 중심으로 일본 국가에 의한 보상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모두 세 단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본변호단협의회(회장 아이타니 구니오)와 전후처리 입법을 구하는 법률가 유식자회(회장 쓰찌야 코겐), 모토오카 쇼지 의원(민주당)이 '전시 중 성적 강제피해자 보상법안'을 마련 중이다.



..... 2000년 법정 후원 안내

2000년법정은 전 과정이 모금과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여러분의 정성어린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조흥은행 : 308-04-760110(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우 체 국 : 110820-7757(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국민은행 : 011-01-0384-327(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 2000.2.18 소집 1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을 왜 개최하는가?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이제까지 가장 불충분한 것이 책임자 처벌문제이다. 1990년 이래 정대협에서는 진상규명, 사죄 등과 같은 6개 항목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왔다. 또한 각국의 피해자들은 '책임자의 처벌 없이 빼앗긴 명예의 회복은 없다'고 계속 호소해왔으며, 누가 책임자였는가를 밝히는 진상규명활동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상시적인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을 명시화하고 있는 유엔은, 안타깝게도 과거의 전쟁범죄 처벌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던 '위안부' 관련범죄는 여전히 취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1945년의 도쿄재판에서 제 2차 세계대전시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가 어느정도 밝혀졌으나, '위안부' 문제는 취급조차 되지 않았다. '2000년 일본군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이하 2000년 법정)'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출발하여 2000년 법정을 통해 도쿄재판을 비롯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각

국에서 이루어진 전범재판을 재검토하고, 여성의 힘, NGO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시민들의 법정을 개최하고자 하는 것이다.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으로
새로운 평화의 세기를 열어가자!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in 2000

일 시 : 2000.12.7(목)-11(월)
장 소 : 일본 동경 구단회관
주 최 : 한국, 북한, 대만,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피해국 관련단체와 일본의 시민단체
표 어 :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명예와 정의를!"

여성에 대한 조직적 성폭력은 구유고 슬라비아, 동티모르, 보스니아 사태에서 드러나듯, 무력분쟁이 있는 어느 곳에서나 만연하고 있다. 따라서, 2000년 법정은 가부장제와 군국주의, 전쟁 등 무력갈등이 있는 곳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강하게 경고하기 위한 재판이다.

2000년법정은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20세기를 정리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성인권을 짓밟았던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또 다시 무력갈등 하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본군 위안부제도에 대한 책임자처벌을 통해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사무국

- 한국: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5번지 기사연빌딩 3층(120-012)
전화: +82-2-365-4016, 팩스: +82-2-365-4017, 전자메일: jdh@peacenet.or.kr 홈페이지: http://witness.peacenet.or.kr
- 일본: 바우넷 제팬(VAWW-Net Japan)
2-10-10 Shiomi, Koto-ku, Tokyo 135-8585 Japan
전화/팩스: +81-3-5337-4088, 전자메일: vaww-net-japan@jca.ax.apc.org
- 필리핀: 여성의 인권을 위한 아시아센터(ASIAN CENTER FOR WOMEN'S HUMAN RIGHTS)
Suite 306 MJB Bldg, 220 Tomas Morato Ave, Quezon City, Philippines
전화/팩스: +63-2-928-4973, 전자메일: ascent@mnl.cyberspace.com.ph, 홈페이지: www.vawwnet.org, www.ascent.org



2000년 법정 어떻게 진행되는가?

1) 2000년 법정의 구성

【검사단(안)】

- ▲ 검사단 : 2인1조로 부장 검사단을 형성하고, 총 9명이다.
- ▲ 검사장단 : ① Ms. Asma Jahangir(파키스탄, 검사장), ② Ms. Rebecca Cook(캐나다, 검사장보), Ustina Dolgopol(오스트레일리아, 검사장보)
- ▲ 각국검사단 : 한국(박원순 변호사, 참여연대) 등 총 9명

【판사단(안)】

- ▲ Ms. Gabriela McDonald(미국, former chief of judge of the ITFY)을 비롯한 총 7명

【월고단】

- ▲ 14명 : 각국별 2명×7개국

2) 2000년 법정의 조직

【국제실행위원회】

한국: 한국위원회(Korean Organizing Committee)
 일본: 바우넷제펜(VAWW-Net Japan)
 대만: 태북시부녀구제사회복지기금회(Taiwan Women's Rescue Foundation)
 북한: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조사대책위원회
 필리핀: 말라야 로라스(Malaya Loras/ASCENT)
 중국: 상해 위안부연구센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법률구조회(LBH Jakarta Legal Aid Institute)
 말레이시아: 미정

【법률자문단】

반보벤(네덜란드, 매트리티히트대), 룬다 코플론(미국, 뉴욕 시립대)

【국제자문단】

샬롯 번치(미국, 플로렌스 부타구와(우간다), 마리메 루카스(알제리) 등

【공동대표】

윤정옥(한국), 마쯔이야요리(일본), 인다이 사호르(필리핀)

【사무국】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바우넷 제펜, 아센트(ASCENT)

3) 2000년 법정의 형식

2000년 법정은 일본군'위안부'제도와 관련한 일본정부(일본군)의 국가적 책임과 전범 개개인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며,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성립과 강제 연행, 그리고 위안소에서 삶, 패전 이후 할머니들의 침묵과 일본군'위안부'문제 제기 이후를 중심으로 맞춰질 것이다. 각 나라별로 90분간의 시간을 가지며, 검사 30분, 원고 30분, 전문가증인 30분의 할당된 시간 배정하에 진행된다.

4) 2000년 법정 일정

【전체일정】

- * 총 일 정 : 2000.7-11(5일간)
- * 본 법 정 : 2000.8-10(2박3일)
- * 공식언어 : 영어, 일어, 한국어(기타 필요한 언어는 꺾속 말 통역)
- * 장 소 : 일본 동경 시내 구단회관
- * 참석규모 : 1000명(한국 150명 포함)

【국제공청회】

- * 일시 : 2000.12.11(월)
- * 무력갈등 하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례(안)
 동티모르 / 인도네시아 / 미얀마 / 아프가니스탄 / 알제리아 / 구 유고 / 과테말라 / 멕시코 / 르완다 / 알제리아 / 콩고 / 주한 미군기지 / 칠레 / 방글라데시 / 파키스탄 / 카시미르 / 팔레스타인 / 이스라엘 등



역사적으로 살펴본 반인도적 전쟁범죄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전범재판

베트남전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최초의 민간법정인 러셀 국제전범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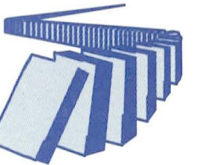
전쟁과 그에 따르는 온갖 비인간적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민간차원에서 묻고자 하는 시도는 1967년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이 주도하여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 국제전범법정은 베트남전쟁의 발발에 대한 미국의 책임과 전쟁수행 중에 이루어진 각종 전쟁법규 위반행위와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죄책을 규명하기 위해 세계 각 나라의 저명한 학자, 역사가, 과학자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러셀법정은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기구가 무력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뉘른베르크 법정과 도쿄 법정과 각국의 법원에 의한 후속재판과 같은 조약이나 국내법의 근거를 가진 형사법원을 마련할 수 없음에 대한 반발과 좌절에서 비롯되었다.

러셀법정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대해 저질러진 참혹한 범죄에 대한 증인일 뿐이라는 인식 아래 은폐되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아 인류의 양심과 인간성에 호소하여 '세계정의, 평화의 재확립과 억압된 삶들의 해방'을 위해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 양심있는 인사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소집되었다. 의장을 맡은 장 폴 사르트르에 따르면 이 법정의 정당성은 오히려 국가권력의 관여가 없이 오로지 양심에 비춘 독자적인 활동 수행에 있다고 했다.

러셀법정은 1967년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두 번 개최되었으며, 미국정부의 침략행위 여부, 미군의 전쟁법상 금지된 무기의 사용 여부, 순수민간 성격의 목표물에 대한 폭력여부와 규모, 베트남 포로들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 집단학살 행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하였다. 러셀법정은 정의롭지 못한 전쟁에 대한 공모, 민간인과 병원, 학교에 대한 대규모 공격, 정치범 고문, 베트남의 국토와 사회구조의 계획적 파괴를 비롯한 범죄행위에 대해 미국과 관련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하였다.

러셀법정은 처음에는 냉소와 무관심 속에서 활동하였으며 법정이 열리면서 많은 퇴역병사들이 증언을 하고 몇몇 국가들이 여러문제에 대해 법정의 견해를 요청하는 등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여론의 주목을 끌게 되었고 법정이 활동을 끝난 후에도 마이 라이와 핑크빌 학살이 알려지면서 법정이 내린 결론이 진실이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구 유고 연방 내의 민족갈등에 대한 구 유고 전범재판

1980년 티토 사망이후 연방의 행태를 유지하던 구 유고연방은 1991년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독립선언을 기점으로 5개국으로 분할되었다. 이 과정에서 구 유고 연방의 영토에서 민족간의 갈등으로 인해 무력분쟁, 인종청소와 같은 잔혹행위가 발생하였다. 이에 유엔은 초기에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정치적 해결을 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구 유고 영토내에서 행해진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처벌한 국제전범재판소의 설립을 결정하였다. 유엔은 안보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구 유고 영역에서 국제인도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개인의 책임추궁을 위해 해당개인의 소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전범재판소 설립을 합의하여 1993년 헤이그 국제전범재판소가 설립되었다.

구 유고 전범재판소는 임시적인 성격의 사법기간으로 구 유고 영토에서의 평화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재했다. 또한 재판의 대상도 지역적으로 구 유고 영토에서 저질러진 범죄에, 시간적으로는 1991년 이후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제전범 재판소의 설립은 개인의 국제법상 책임을 직접 추궁하는 국제법정으로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법, 특히 국제인도법의 실현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의미있다.